

GS칼텍스 vs 흥국생명, 남은 3경기 일정 누가 유리할까

GS칼텍스, 시즌 첫 1위...4연승으로 역전우승 넘바
하위권 팀 맞대결 앞두고 긴 휴식기간 체력안배 도움
흥국생명, 연패 거듭 분위기 좋지 못해...김연경 분전

GS칼텍스와 흥국생명이 남은 3경기에 사활을 건다.

GS칼텍스(18승 9패·승점 53)는 지난 2월28일 흥국생명(18승 9패·승점 53)과의 경기에서 승리해 1위를 탈환했다. 승점이 같지만, 세트득실률에서 앞서 1위로 올라선 것이다.

이날 GS칼텍스는 외국인 선수 러츠, 강소휘, 이소영이 흥국생명 진영을 맹폭해 시즌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GS칼텍스의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좋다. 최근 4연승을 달리며 역전 우승을 바라보고 있다. 무엇보다 선수들이 기복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강점이다.

러츠는 최근 5경기 연속 20점 이상 올리는 화력을 자랑하고 있고, 강소휘는 최근 높은 공격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소영은 토종 선수 최다득점 4위를 달리고 있다.

승기를 잡은 GS칼텍스는 오는 5일 현대건설, 12일 IBK기업은행, 16일 KGC인삼공사와 맞대결을 펼친다.

현대건설과 인삼공사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팀이고, 기업은행과의 상대전적에서도 3승2패로 강했다. 경기 후 휴식 기간이 길다는 점도 GS칼텍스 선수들의 체력 안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GS칼텍스는 남은 경기에서 선전한다면 12시즌 만에 통산 2번째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할 수 있다.

GS칼텍스 주장 이소영은 "힘들게 1위로 올라가서 기분이 좋다"면서 "1위 자리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



같다. 남은 경기에서 지켜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반면, 흥국생명은 최근 브루나와 김연경이 분전하고 있지만, 조지력이 흔들리고 있다. 부정확한 서브리시브도 불안 요소다.

흥국생명은 시즌 초반 파죽의 10연승을 달리며 줄곧 1위를 질주했다. '어우흥'(어차피 우승은 흥국생명), '흥벤



저스로 불리며 역대 최강팀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흥국생명은 3경기를 남겨두고 1위 자리를 내줬다.

무엇보다 연패를 거듭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다.

주전 레프트 이재영과 세트 이다영은 과거 학교 폭력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에 흥국생명 선수단 전체에 무거

운 압박이 짓누르고 있는 형국이다. 백업 선수들로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서브리시브가 살아나지 않을 경우,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다. 주장 김연경이 선수들을 다독이며 팀을 이끌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흥국생명 박미희 감독은 GS칼텍스와의 경기 전 "선수들이 노력하고 있

다. 결과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흥국생명의 즐기는 배구는 나오지 않았다. 흥국생명은 6일 한국도로공사, 9일 현대건설, 13일 인삼공사와 차례로 맞붙는다. 현재 전력을 감안하면, 안심할 수 있는 상대는 없다.

KIA 윌리엄스 감독 "수비 전체 잘 되고 있어"

터커 1루수 변화...외야진 등 수비력에 자신감 보여



프레스턴 터커

"점점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 맷 윌리엄스 KIA 타이거즈 감독이 2021 시즌 수비력에 자신감을 보였다. 작년 KIA의 수비력은 안정되지 못했다. 외야 수비가 불안했고 내야진도 부상선수들이 잦았다. KIA는 올해 수비 포지션에서 변화를 주었다. 우익수 프레스턴 터커를 1루수로 돌렸다. 외야진의 수비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나지완은 좌익수 그대로 맡는다.

대신 김호령이 중견수, 작년 중견수를 맡은 최원준이 우익수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진도 경쟁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 투입된다. 내야진도 달라진다. 터커의 1루수, 2루수 김선빈, 3루수 류지혁, 유격수 박찬호 포메이션으로 간다. 작년에는 김선빈과 류지혁의 부상으로 김규성, 김태진, 나주환 등 여러 명이 내야진을 오갔다. 올해는 김선빈과 류지혁이 부상

에서 회복했다. 여기에 2루수 김규성과 3루수 김태진이 백업진을 형성했다. 1루는 황대인이 백업으로 대기하고 있다. 류지혁과 김규성은 유격수까지 커버가 가능하다. 다양한 옵션들을 활용할 수 있다. 메이저리그 3루수로 이름을 날린 윌리엄스 감독은 스프링캠프에서 내야수들에게 공을 많이 들었다. 직접 평고를 날려주며 다양한 방식으로 수비력을 늘려주고 있다. 특히 대학 시절 이후로 1루수로 변신한 터커는 더욱 공을 들었다.

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만난 윌리엄스 감독은 "지금까지 전체적인 모습은 좋았다. 경기에 들어가서 직접 체감을 해야 한다. 경기에서 타구속도는 분명 다르다. 그동안 최대한 시뮬레이션 느낌으로 실제 경기한 듯 진행 했지만 체감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비 전체가 잘 되고 있다. 외야는 다이내믹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터커도 점점 편안함을 느껴서 좋다. 수비 컨디션도 아주 좋아 보인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100패 하겠다" KIA 퓨처스 이끄는 이범호 총괄 '빅피처'

이기는 것 집착 않고 육성에 매진하겠다는 의미

"100패 하겠다". KIA 타이거즈 퓨처스 팀을 지휘하고 있는 이범호 총괄코치가 100패를 선언했다. 이기는 것이 집착하지 않고 육성에 매진하겠다는 선언적 의미이다. 승패에 관계없이 '선택과 집중'으로 출전시간을 확실하게 보장해 1군용 선수들로 키우겠다는 의지이다.

2월26일 합평-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만난 이범호 총괄코치는 "맷 윌리엄스 감독, 구단의 방향성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같다. 퓨처스 리그에서 승리는 의미가 없다. 선수를 키워내는 것이 가장 큰 임무이다. 100패를 한다고 각오로 퓨처스 팀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선수들의 기용방식도 기존과는 대폭 다르다. 선택과 집중이다. 이범호 총괄코치는 "퓨처스 경기에서도 선택한 선수들은 1회부터 9회까지 모두 출전시킬 것이다. 예전 같으면 선수별로 몇 이닝씩 나누어 출전했으나 올해는 9명이 9회까지

마치는 경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괄은 이어 "투수들도 80개 혹은 100개까지 투구수를 정해 던지도록 하겠다. 대신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선수들은 경기시간에 따라 경기장이 아닌 제 2구장과 실내 연습장에서 훈련을 한다. 특히 어린 선수들은 상당한 훈련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하려는 것은 선수를 위주로 기용할 것이다. 두산은 아침부터 야간까지 하루종일 훈련을 해도 힘들다고 말하는 선수도 없다고 들었다. 나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 내 목표는 1년에 한 명, 1군용 선수들을 만드는 것이다. 수년이 지나면 팀의 핵심(선수층)도 강해지는 것이다"며 강한 각오를 다졌다.

KIA는 올해부터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1군과 퓨처스 팀의 훈련 스케줄이 동일하다. 맷 윌리엄스 감독이 훈련 일정을 짜면 1군과 퓨처스 팀이 그대로 훈련한다. 1군과



동일한 훈련을 해야 퓨처스 선수들이 1군에 올라와도 변화없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이유이다.

이 총괄은 "1군용 선수들은 요청하면 바로 올라가야 한다. 심리적으 다운되지 않도록 기본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1군에 잘 올라가지 못하는 선수들은 꾸준히 동기부여를 하며 이끌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하성, 20-20 달성 NL신인왕" 美언론 대담한 예측

NBC스포츠, 메이저리그 예측서 김하성 활약 전망



메이저리그에 뛰어들 김하성(26·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을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NBC스포츠는 2일(한국시간) 2021시

즌 메이저리그 대담한 예측을 내놨다. 김하성을 향한 예상도 있었다. 드류 실바 기자는 "김하성이 20홈런·20도루를 달성하며 2021년 내셔

널리그 신인왕에 선정되는 등 샌디에이고에서 큰 활약을 펼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제 막 빅리그에 도전장을 내민 김하성을 향한 후한 평이다. 그만큼 기대치가 높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신인왕은 김하성의 목표이기도 하다.

포스팅을 통해 샌디에이고와 계약한 김하성은 신인왕을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목표의식이 있으면 나를 더 채찍질할 수 있다"며 당찬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빅리그 적응이라는 첫 번째 과제를 풀어야 하는 김하성의 첫 출발은 순조롭다.

지난 1일 시애틀 매리너스전에서 2타수 무안타로 침묵한 그는 이날 시카고 컵스와 경기에서 2타수 1안타를 기록, 시범경기 첫 안타를 생산했다.

스노보드 알파인 김상겸, 세계선수권 4위

역대 최고 성적

김상겸(32·하이원리조트)이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알파인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평행대회전 4위에 올랐다.

김상겸은 1일(현지시간) 슬로베니아 로글라에서 열린 2021 FIS 스노보드 알파인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출전 선수 58명 가운데 4위에 올랐다.

한국 스키 사상 세계선수권대회 역대 최고 성적이 타이다. 2017년 3월 서지원이 프리스타일 스키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듀얼 모굴에서 4위를 차지한 것이 종전 최고 성적이다.

김상겸은 예선 1, 2차 시기 합계 1분02초93을 기록해 9위로 예선 상위 16명이 나서는 결선에 진출했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이뤄지는 결선에서 미르코 펠리체티(이탈리아)를 0.61초 차로 제치고 8강전에 진출한 김상겸은 8강전에서는 미할 노바치크(폴란드)를 0.02초 차로 따돌렸다.

4강전에서 세계랭킹 1, 2위를 다투는 톨랑 피슈날리(이탈리아)를 만난 김상겸은 0.78초 차로 패배했다.

김상겸은 동메달이 걸린 3·4위전에서 안드레이 소볼레프(러시아)보다 0.26초 늦게 결승선을 통과, 최종 4위로 대회를 마쳤다.

김상겸은 2017년 3월 터키 카이세리에서 열린 FIS 스노보드 월드컵 평행대회전 4위 이후 4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 4위에 이름을 올리며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메달 기대를 높였다.



2021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알파인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4위에 오른 김상겸. (사진 = 대한스키협회 제공)

대회를 마친 뒤 김상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걱정도 많았지만, 봉민호 감독님을 비롯한 코치진의 도움과 대한스키협회, 하이원리조트의 지원을 받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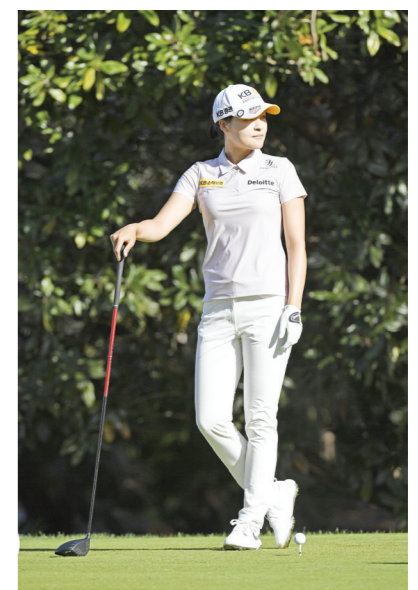
이어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메달 획득 가능성이 보인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두고 내일 평행회전도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이상호(26·하이원리조트)는 14위에 자리했다.

이상호는 예선에서 1, 2차 시기 합계 1분03초08을 기록해 14위로 결선 무대를 밟았지만, 16강에서 안드레이에 0.15초 차로 밀려 8강전에 오르지 못했다.

여자 평행대회전에 출전한 정해림(26·경기도스키협회)은 23위에 머물렀다.

뉴시스



'두 대회 연속 톱10' 전인지, 세계랭킹 59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2개 대회 연속 '톱10'에 오른 전인지가 여자골프 세계랭킹 59위로 점프했다.

전인지는 2일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지난주 61위보다 두 계단 상승한 59위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1월 LPGA 개막전이었던 다이아몬드 리조트 챔피언스 토너먼트에서 단독 4위를 차지한 전인지는 전날 막을 내린 두 번째 대회 게인브리지 LPGA에서 공동 8위에 올랐다.

지난해 말 세계랭킹 62위까지 떨어졌던 전인지는 최근 상승세를 뽐내면서 50위권 진입에 성공했다.

전인지의 개인 최고 랭킹은 2016년 3위다. 게인브리지 LPGA에서 우승한 넬리 코르다(미국)는 4위에서 3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